

전북교육청, 보급용 면마스크 지원

필터 교체용 등 총 133만3320여매, 등교 개학 이후 학생에 배부... 1인당 4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등교 개학 이후 학생들에게 나눠줄 보급용 면마스크 배부에 나섰다.

지난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4월 말까지 필터교체용 면마스크를 포함한 총 133만3,320여 매의 면마스크를 도내 모든 학교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다. 면마스크 88만8,880여매, 필터교체용 면마스크 44만4,440여매 등이다.

특히 이들 제품은 모두 국내산으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으로, 도교육청은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시험성적표를 첨부해 학교에 안내했다.

면마스크는 학생 1인당 4매를 지급

할 예정으로 2매는 등교 개학 이후 즉시 배부하고, 2매는 보관 후 분실 등으로 교체가 필요할 때 지급하도록 했다.

1인당 2매를 지급하는 필터교체용 면마스크 역시 1매는 등교 개학 이후 즉시 배부하고, 1매는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교체가 필요할 때 배부할 예정

이다. 여기에는 마스크 1매당 교체형 KF94 필터 7장이 포함된다.

이는 일시 배부로 인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교 여건에 맞게 보급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에서는 면마스크를 수령하는 즉시 검사·검수를 완료하고, 학생들이 등교 개학하는 즉시 배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전주대 선정...28억여원 지원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지난 17일 2020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대학원 실험실이 보유한 연구성과와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기술혁신형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험실(특화형) 창업'은 대학에서 논문 또는 특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창업'과는 구별되며, 기술혁신과 신규 산업의 창출이 용이하다.

전주대 창업지원단은 유망 실험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총 28억 여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식재산 고도화, 비즈니스 모델 검증, 투자 유치, 맞춤형마케팅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전주대만의 최적화된 창업지원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는 대학 본부와 학생 및 조교 대표까지 참여하는 '비대면수업관리 TF'를 구성하고, 지난 4월 13일부터 공과대학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단과대학을 순회하며 수업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학교운동부 훈련장비 지원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가 도내 초·중·고교 운동부에 훈련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7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2020년 학교운동부 지원사업비 약 2억2400만원을 도내 22개 학교 운동부에 지원한다.

학교 운동부 지원사업은 훈련여건을 개선해 우수 학생선수를 육성하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전북체육회는 학교체육위원회를 열어 육상과 배드민턴, 수영, 바이애슬론, 탁구, 사격 등 13개 종목에 22개 학교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에는 체지방 측정기와 전신 반응 측정기, 고속비디오 촬영 시스템 등 과학적 훈련기기와 각종 체육 용품을 지원받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비대면수업 질 높인다...이번엔 단과대 소통행보

비대면수업관리 TF 구성, 순회 간담회... 교수·학생 어려움 청취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수업 질 제고와 학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단과대학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섰다.

그간 비대면 수업 기간을 1~2주 단위로 연장해 왔던 전북대는 학생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는 판단 하에 거점국립대 중 처음으로 비대면 수업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운영키로 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수업의 질 문

제 해소를 위해 전북대는 대학 본부와 학생 및 조교 대표까지 참여하는 '비대면수업관리 TF'를 구성하고, 지난 4월 13일부터 공과대학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단과대학을 순회하며 수업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순회 간담회에서는 김선희 교학부총장과 최백렬 교무처장, 학사관리부서 관계자 등이 단과대학을 방문해 비대면수업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직접

제작하고 강의를 듣는 교원과 학생의 어려움을 청취해 제기된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김선희 교학부총장은 "사상 초유의 비대면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국이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구성원의 지혜를 적극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체육 통한 삶의 질 향상”

송재호 무주군체육회장, 도민체전 끝까지 탈출 구상

“남녀노소 누구나 체육으로 건강 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재호 무주군체육회장은 그간 체육회와 함께 해왔던 '체육 베테랑'으로 전 무주군체육회 수석부회장, 생활체육협의회회장 등을 역임했다.

송 회장의 체육발전 공약을 살펴보면 ▲동호인종목 활성화, 동호인 수 배가운동 ▲체육 기반시설인 프라화충 ▲전국대회 및 유소년대회 적극 유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국기원유치 운동전개 등이다.

특히 체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호인 수 배가운동과 체육시설 확충에 적극 나섰다.



송 회장은 “현재 무주군 동호인 수는 약 2500명 가량 되는 데 너무 부족하다”며 “군민들이 쉽게 체육을 접할 수 있게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구장)이 없는 종목이 많아 대회 유치 및 군민들이 접할 수 있는 운동이 한정 돼 있다”며 “특히 불링의 경우 불링장이 없어 인근 지역인 영동이나 금산으로 동호인들이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인 데 불링장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전북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도민체육대회에서 무주군이 매년 꼴찌를 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며 무주군의 체육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사업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그는 “도민체전 출전 종목 수가운데 무주군은 일부 종목의 경우 선수가 없다보니 참가 접수 자체가 없어 늘 하위권이었다”며 “전 종목에 선수를 출전시켜 꼴찌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보고 싶다”고 소망을 언급했다.

또한 송 회장은 “체육회가 출·퇴근만 하는 단순 직장이 아닌 일 할 맛 나는 즐거운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양지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매년 전직원 해외연수 등을 통해 화합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의)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해 무주군 체육 발전에 헌신하겠다”며 “군민들의 건강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체육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세월호 영화 '부재의 기억' 이승준 감독 오늘 전주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영화 '부재의 기억' 이승준 감독을 초대해 감독과의 만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일 저녁 7시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부재의 기억'을 상영하고, 감독과 함께 세월호 참사와 영화제작 과정, 영화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

영화 '부재의 기억'은 국가의 부재에 의문을 던지는 29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로 2014년 세월호 참사 현장의 영상과 통화기록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작품은 2018년 8월 개봉했으며, 2018년 뉴욕 다큐멘터리영화제 단편 부문 대상 2019 미국 AFI Docs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 2019 국제보도사진전(World Press Photo Award) 디지털스토리텔링 부문 대상 2019 미국 Indy Shorts International Festival 관객상을 수상했다. 특히 2020년 2월 9일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오르는 새 역사를 쓰기도 했다. 이 날 감독과의 만남에는 세월호 유가족들도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 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영화감독,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국가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